•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제26차 세계대회 •

Touching and Sharing : 가톨릭 의료인의 사명과 고통에의 동참

오승민 엘리아 |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료협력본부 사무국장

첫째 날, 두 번째 강의를 하신 크라코프의 Dziwisz 대주교님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계신 고통 받는 분 - 복자 요한 바오로 2세[1]"의 강연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 곁에서 돌보는 사람들의 고통에의 동참이 갖고 있는 의미와 함께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들이 갖고 있어야 할 윤리적 자세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의 강연[2]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여러 치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치유 행위를 넘어서서 만나신 이들의 삶에 주신 충만함에 대한 내용과 고통에 처한 상황이 사랑과 영광, 그리고 부활을 예비하는 장소가 되게 하신 십자가 죽음의 신비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서 touching and sharing으로 표현되는 연민을 통한 고통에의 직접적인 동참이 가톨릭 의료인의 사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할 의료인의 자세[3]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 사회가 인간적인 사회인지 아니면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사회인지는 그 사회가 가장 약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복자 요한 바오로 2세의 고통에 대한 인식과 대중매체의 영향에 대한 강연[4]에서는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방송을 복음화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셨으며, 울고 웃고 기도하고 설교하시는 모습과, 병으로 고통 겪으시는 모습까지 방송 카메라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육체적 고통과 서거에 대한 방송은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고통 받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연민과 동참의 의미를 더욱 깊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다.

이밖에 생명수호를 위한 기관의 역할[5]이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6]과 같은 실제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한 강연도 있었으며 강연자로는 유럽, 북미의 성직자들 외에도 대만, 필리핀에서 온 의료인들까지 다양한 내용을 전해주었다.

아무리 발전된 의학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의학이 생각하는 모양으로만 인간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통은 질병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한 동시에 인간성 그 자체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7] 누구나 탯줄이 끊기는 순간, 자신의 폐로 첫 숨을 내쉬어야 하는 그 순간, 인생이란 짐이 자리 잡는다. 이 짐의 모양은 각자 모두 다르나 그 무게는 같다. 그래서 그 무게에 힘들고 아파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가슴 속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지 않으셨다면, 조롱과 멸시 속에 골고타 언덕을 걷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 고통을 겪지 않으셨다면 '나도 함께 힘들고 아프다.'는 말씀에 그렇게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구원에 이르는 고통(Salvifici Doloris)에서 복자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운명의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상황의 유사성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고통의 의미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을 통하여 서로가 비슷하게 된다.'[8]고 하셨다. 이것은 고통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연민과 통교의 신비함이다. 환자를 보는 의료인으로서 다시금 이 신비를 묵상하게 된다. 그리고 성령의 통교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하느님의 은총 안에 잠겨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 곁에 어떻게 다가설 지에 대한 가르침을 실행할 용기를 구한다.

1) His Eminence Cardinal Stanislas Dziwisz, Archbishop of Krakow, The Blessed John Paul II, a Suffering Man amongst The Suffering,
2) Rev. Fr. Enzo Bianchi, The Wounded Healer: Christ, Physician of Bodies and Souls
3) Rev. Msgr. Andrea Pio Cristiani, The level of Humanity is determined Essentially by the relationship with Suffering and with the Suffering.
4) Rev. Fr. Federico Lombardi, S.I. The Mass Media and the Perception of Pain of the Blessed John Paul II.
5) The Role of Institutions and Goverments in the Defence of Life
6) Rev. Msgr. Vitor Feytor Pinto, et al., Bearing Witness to the Gospel of Life : the experiences of Ministers of the Church and Health care workers.
7) 요한 바오로 2세, 구원에 이르는 고통(1984), 정한교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2007) p.14
8) 같은 책, p.10